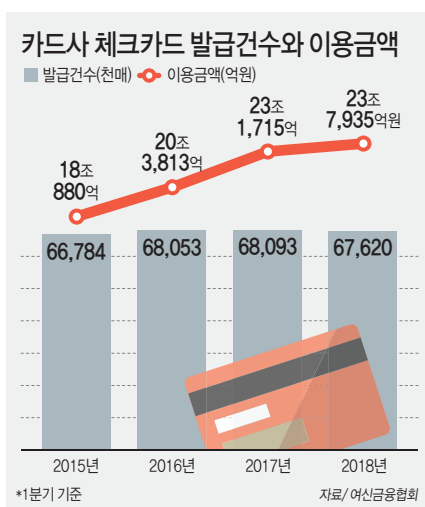


이용액 증가 체크카드... 카드사엔 언제 실적 효자노릇하나

전체카드 이용 비중 25% 차지
부가수익 신용카드보다 '미미'
“장기적 잠재적 효과 고려해야”

직장인 A씨(30)는 올해 들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을 늘렸다. 체크카드 혜택이 확대된 데다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 무분별한 지출이 조금이나마 줄어 들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다.

체크카드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체 카드 이용 비중의 25%를 차지하면서 카드사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현금 개념의 체크카드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카드사 수익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서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 건수는 주춤했지만 이용금액은 23조7900억원으로 지

난해에 비해 6000억원 증가했다. 체크카드 누적 이용금액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은행계' 카드사로 KB국민카드가 8조 545억원, 신한카드, 우리카드가 각각 7조 3681억원, 4조822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크카드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 온 '기업계' 카드사 가운데 삼성카드도 올해 1분기 이용금액이 2770억원으로 지난해(2537억원)에 비해 2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먼저 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결제 규모가 늘어나고 연말정산의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말 정산 시 연봉의 25% 초과 결제금액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다.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이 밖에 카드 연동계좌에서 돈이 즉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 특성상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고 관리도 편리해 체크카드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체크카드의 활약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할부수수료나 연회비 수익, 연체수익 등의 부가수익이 체크카드에선 발생하지 않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로 돌아오는 수익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사실 체크카드에서 나오는 수익은 신용카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이후에 신용카드 고객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발급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카드사의 체크카드 증가에 맞춘 상품 확대가 경영 악화에 허덕이는 카드사들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체크카드 사용증가가 카드사에 별다른 이익이 없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 사용이 가져올 잠재적 효과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잠재적 효과로는 신용카드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갚지 못하는) 고객부실에 따른 카드사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사기범 17개 목소리, 현상수배 합니다”

금감원, 보이스피싱 목소리 공개

금감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17명을 공개 현상수배한다.

금감원은 사기범 목소리 데이터베이스(DB)를 비교·분석해 4차례 이상 신고된 사기범 17명의 목소리(‘바로 이 목소리’)를 공개하고, 현상 수배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들로부터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국과수에 제공하고, 성문(聲紋)분석 기법을 통해 여러 차례 신고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적출하는 등 사기범 목소리 DB를

축적해 왔다.

‘바로 이 목소리’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청취할 수 있다. 해당 목소리의 사기범 인적사항을 신고해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고압적인 말투로 주로 ‘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다”며 “‘바로 이 목소리’를 통해 보이스피싱의 주요 사기 수법이나 특징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는 즉시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디지털혁신 선도... 고객 중심 경영 박차”

KB금융그룹 하반기 경영진 워크숍

윤종규 회장·허인 은행장 등 참석
SI 보이스뱅킹 개발 사례 등 공유

KB금융그룹은 지난 13일 KB국민은행 경기도 일산연수원에서 '2018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종규 회장, 허인 은행장을 비롯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전체 경영진이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고객중심 경영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 디지털부서 실무담당 직원들을 강사로 초청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이스뱅킹 개발사례와 기업여신, 리서치, 콜센터 등 128개 업무에 적용된 운영중인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활용사례 등 그룹 내 디지털 기술 시연을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이 지난 13일 개최된 2018년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고객 중심 경영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유스(Youth)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SNS 특강, 미래 전망, 글로벌 인사이트 등 혁신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전문가 특강에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경영진의 조별 분임 토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투자설명회(IR) 및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인도를 다녀온 윤 회장은 해외에서 직접 접한 투자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시장 분위기를 경영진들과 공유했다.

KB금융 관계자는 15일 “모든 경영진들이 한 자리에 모인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통해 그룹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며 “특히 이번 워크숍은 KB가 디지털 시대에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금융의 이니셔티브를 확고히 할 것과 고객중심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겠다는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l@

“美 기업, 금리 올라도 부채 상환부담 제한적”

한은 ‘美 기업부채 현황·리스크 점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미국 기업 부채 상환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 기업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미국 기업부채 현황과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미국 비금융기업의 부채 규모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추가 이자 부담 ▲이자보상배율을 고려해본 결과 기업부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비금융기업 부채는 2008년 말 6조 5705억달러에서 2010년 말 6조 441억달러로 감소했지만 올해 1분기 9조572억달러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다만 한은은 연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41.0%로 과거 고점인 46.6%(2001년)와 44.4%(2008년)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이자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은 금리인상의 경우 2019년 371억 달러로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보다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로는 에너지(광업), 유틸리티, 부동산의 이자보상배율이 특히 낮아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 추정〉

정책금리 변화	정채금리 변화	추가적 이자비용 (백만달러)		
		채권	대출	합계
2018	94	898	14,440	15,338
2019	184	4,143	32,989	37,132

정책금리 변화는 누적 기준 /자료=FRB

금리상승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들 산업부문이 금융위기 이후 레버리지가 꾸준히 상승해온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 가정하에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점에서도 기업부채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1 미만이면 영업이익 전체로도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자보상배율은 2013년 이후 레버리지가 상승하면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금리 인상 시 2019년 말까지 4.1배로 낮아지더라도 금리 불변 시의 4.6배에 비해 소폭 악화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취약부문도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등으로 이자보상배율의 하락 폭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2000년 이후 평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유리 기자

추월 교통사고, 가해자 100% 과실?

금감원 Q&A

Q 얼마전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 따라 오던 자동차가 제 차를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얼마간 제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도 속상한데, 더욱이 이 사고가 쌍방과실로 인정되어 앞으로 지불할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억울합니다. 저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전했음에도 책임을 일부분 부담해야 하는 점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A 지금까지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는데도 쌍방과실 판정이 나와 억울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2019년 1분기부터는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일방과실(과실비율 100:0)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질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사고유형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는 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 차량에게 일방과실(현재 과실비율 30:70)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운전자는 직진차로의 옆차선 차량이 좌회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접거리에서 급추월을 시도하다가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추월을 시도하던 차에게 일방과실(현재 과실비율 20:80)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 차의 운전자는 뒷 차의 움직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가 신설돼 어떤 유형의 사고에 일방과실을 적용할지를 심의할 예정인데, 동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DART 사용법 교육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전자공시 시스템(DART)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 분기에 한번씩 상장법인 등이 전자공시 문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돕기 위해 DART 사용법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3분기 교육은 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DART 편집기 사용법 등 전자공시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또 사업보고서 내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개별 보수 공시 등 최근 '기업공시 서식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신(新)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변경된 'DART표준계정과목'과 이와 관련한 재무제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DART 사용법 교육실시 내용〉

일시: 18.7.18 14:00~16:00
장소: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대상: 상장법인 공시담당자